

녹십자, 동아제약 지분 대거 정리

1월 보유지분 5% 중 4% 장내 매도 ... 120억-160억원 차익 실현

녹십자(대표 허일섭·조순태·이병건)가 동아제약 지분 대부분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시장에 따르면, 녹십자는 1월 동아제약 임시 주주총회 직후 보유지분 약 5% 가운데 4%인 39만주 가량을 장내 매도했다.

녹십자는 2012년 하반기 경쟁기업인 동아제약 지분을 대거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자 “경영권과 무관한 재무 투자”라고 해명한 바 있다.

녹십자는 투자로 120억-160억원 가량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추정된다. 녹십자와 지주사 녹십자홀딩스의 2012년 영업이익은 900억원을 기록했다.

녹십자 관계자는 “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지분 변동내역을 공개하기 곤란하다”고 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3/03/12>